

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

2017. 4

금융위원회

목 차

I. 코넥스시장 성과 및 반성	1
II. 코넥스시장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	5
1. (상장활성화) 초기기업 시장진입 기회 확대	6
2. (거래활성화) 유동성 확충 및 거래편의 제고 ..	10
3. (이전상장) Fast Track을 통한 이전상장 활성화 ..	12
4. (투자자보호)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 ..	14
III. 기대효과	15
IV. 추진일정	16

I. 코넥스시장 성과 및 반성

(1) 코넥스시장 개요

- 코넥스(KONEX)시장은 코스닥 상장 이전단계에 있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'13.7월 개설
- 지난 '15.4월,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 제한을 일부 완화*하였으나, 여전히 전문투자자 중심 시장을 지향
 - * 기본예탁금 완화(3억→1억) 및 기본예탁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소액투자전문계좌(연간 투자한도 : 총 3천만원)를 통한 투자 허용
- 최소 기본요건* 이외에 수익성 등의 상장 외형요건을 폐지하고, 지정자문인(증권사)이 상장적격성을 평가하는 체계로 운영
 - * 감사의견이 적정할 것,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, 공익·투자자보호상 부적합 사유가 없을 것 등

< 중전 활성화 대책('15.4월)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>

- ① (수요 측면) 개인투자자의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예탁금 규제를 완화하고, 기관투자자 참여 유인을 위해 코넥스투자 인센티브 확대
 - 개인 : 기본예탁금 완화(3억원→1억원), 예탁금 면제 소액투자전문계좌 도입(연간 3천만원 한도) 등
 - 기관 : 코넥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최우선배정혜택 부여
 - * 코넥스주식 편입비율이 펀드자산의 2% 이상인 경우 코스닥주식 공모분의 5% 우선 배정
- ② (공급 측면) 최소한의 기본요건 이외에 수익성 등 상장 외형요건을 폐지하고, 기술력을 갖춘 초기기업을 위한 특례상장제도* 도입
 - * 거래소가 지정한 기관투자자(VC등)로부터 투자유치(20% 이상 지분을 1년 이상 보유)를 받고,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(기술평가 BB 이상)에 대해서는 지정자문인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

(2) 코넥스시장 성과

- (외형적 성장) 시장 개설 후 4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질적·양적으로 급성장하여, 중소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초기 자본시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
- 상장기업 수는 21개에서 141개*로, 시가총액은 4,689억원에서 39,79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('17.3월말)

* 26개 이전상장 기업(코스닥 시총 17,572억원) 및 2개 M&A 성공 기업 제외



- (기업 자금조달) 개장이후 총 71개 상장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3,502억원* 규모의 자금조달에 성공('17.3월말 기준, 누적)
 - 대출에만 의존하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고 중소→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
 - * ('13) 136 → ('14) 679 → ('15) 903 → ('16) 1,321 → ('17.3월) 463억원
 - ※ 자금조달 측면 외에 대외인지도·신뢰도 제고, 국내외 영업 기회 확대, 우수인력 채용 등 비계량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평가 (코넥스 현장간담회(2.14))
- (투자자금 회수) 이전상장, 인수·합병(M&A) 등을 통해 초기 투자자금의 중간회수 시장으로 기능
 - 총 26개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
 - 일부기업(2개사)은 상위시장 기업과 합병하여 사업구조 재편 및 성장동력 확충, 투자자금 회수를 통한 채투자 기반 마련 등 긍정적 효과 시현

[3] 보완해야 할 사항

-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 확대
 - 기술력을 갖춘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도입하였으나, 요건이 엄격*하여 실적이 미미한(1개사) 상황
 - * 지정기관투자자(VC등)가 20% 이상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함
- 유동성 확충을 통한 거래활성화
 - '15년 대책 이후 거래규모가 증가*하였으나, 거래상위 종목의 코스닥 이전 등으로 '16년 이후 감소세
 - * 일평균 거래대금(억원)
 - ('13) 3.9 → ('14) 3.9 → ('15) 18.2 → ('16.1Q) 28.3 → ('16.2Q) 28.1 → ('16.3Q) 26.1 → ('16.4Q) 16.5 → ('17.1Q) 12.4
 - 일평균 거래형성률(매매거래 성립일수/전체 매매거래일수)(%)
 - ('13) 49.6 → ('14) 32.6 → ('15) 58.9 → ('16) 73.3 → ('17.3) 75.1
- 상위시장 이전기회 확대를 통한 중간회수 시장 기능 강화
 -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촉진함으로써 초기 모험자본 '회수 → 재투자'의 선순환 구조와 성장사다리체계(클라우드 펀딩 → 코스닥 → 코넥스) 강화 필요
 - * 코스닥 이전상장실적(개사) : ('14) 6 → ('15) 8 → ('16) 11 → ('17.3) 1
-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
 - 성장성 있는 기업과 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코넥스기업 및 거래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

⇒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하여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 추진

참고

기업 성장 단계별 특성과 자본시장의 역할

	창업 단계	성장 단계	성숙 단계
기업 상황	□ 초기 창업단계 (0~3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상업용 기술 개발단계 - 사업 성공가능성이 불투명 - 회계·공시 등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불가능 (내부정보) 	□ 사업화 추진단계 (4~9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산체계 구축, 판로 개척, 수익모델 확보 등의 단계 - 사업화가능성이 다소 확보된 상태이나, 안정적인 수익 등은 발생하지 않음 - 기본적인 회계·공시정보만 제공 가능 	□ 사업화 완료단계 (10~15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업적 생산을 통해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단계 - 회계·공시 역량을 갖추어 정규 주식시장에서 자금 모집이 가능한 단계
투자 위험	□ 매우 높은 투자위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위험이 매우 높음 - 투자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고, 매우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 	□ 높은 투자위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화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는 만큼 투자위험이 높음 - 투자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정보비대칭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있음 	□ 일반적인 투자위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위험 -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 가능
투자자	□ 창업초기 기업 발굴·투자에 특화된 투자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엔젤투자자 - 벤처캐피탈 - 클라우드펀딩 - 금융회사의 모험자본 투자 목적 PEF, 사모펀드 등 	□ 고위험 투자를 선호하는 기관·개인투자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투자자의 대체투자자금 (연기금, 금융회사, 펀드 등) - 고위험 상품을 선호하는 개인투자자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 등 	□ 일반투자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장성 있는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일반투자자
자본 시장 특징 및 역할	KSM, OTC <p>(특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입요건, 공시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음 - 전적으로 투자자 각자의 의사에 따른 1:1 계약 <p>(역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적인 투자자들간 지분 거래를 통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2차 투자 및 초기 투자자금 회수 지원 	코넥스시장 <p>(특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입장벽·공시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함 - 재무요건이 아닌 기업의 가능성을 평가하여 상장 <p>(역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기 투자금에 대한 중간 회수 기능 및 대주주 지분 매각 등을 통한 자금조달 	코스닥시장 <p>(특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무적으로 안정된 기업이 상장하는 시장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함 -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공모 및 주식분산 필요 <p>(역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로 기업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

II. 코넥스시장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

<기본방향>

목표

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·벤처기업 성장 지원

전략

코넥스시장 상장·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
성장사다리체계 강화

상장 활성화

초기기업 시장진입 기회 확대

- ①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
- ② 지정자문인 졸업을 통한 '홀로서기' 유도
- ③ 클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 지원

거래 활성화

유동성 확충 및 거래편의 제고

- ① 소액공모 한도 확대
- ② 기본예탁금 면제 및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 확대

이전 상장 촉진

Fast Track을 통한 이전상장 활성화

- ① 신속이전상장 요건 정비
- ② 신속이전상장 시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 합리화
- ③ 신속이전상장 주선인 보호예수의무 부담 완화

투자자 보호 강화

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

- ① IR 개최횟수 확대 및 개최형태 다양화
- ② KRP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코넥스기업 정보제공 활성화

1 [상장활성화] 초기기업 시장진입 기회 확대

◇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특례상장제도 및 지정자문인제도 개선

(1)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지정기관투자자* 수(20사)가 적고, 기술특례상장 요건**이 엄격하여 활용도 저조 (기술특례상장제도 도입('15.7월) 이후 실적 1개사)

* (현행) 지정기관투자자 요건

- 양적요건 : 중소기업 투자실적 300억원 이상, 전문인력 2인 이상, 경고이상 제재조치 없을 것 등
- 질적요건 :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 사유 없을 것

** (현행) 기술특례상장 요건

- ① (투자유치) 지정기관투자자가 20% 이상 지분을 1년 이상 보유
- ② (기술력)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BB 이상 기술등급 획득
- ③ (투자자 동의) 지정기관투자자의 상장 및 보호예수의무(6개월) 동의

나. 개선방안

- 기술특례상장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정기관투자자 수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완화

- (지정기관투자자 확대) 지정기관투자자 요건 중 중소기업 투자실적을 현행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완화

* 지정기관투자자 수를 현행 20사에서 40~50사로 확대 추진

- (기술특례상장요건 완화)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유치 요건을 현행 지분을 20% 이상에서 지분율 10% 또는 30억원 이상*으로, 보유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

* 피투자기업 1사당 VC의 평균 지분율(7.6%) 및 평균 투자규모(약 20억원) 고려 ('15년 기준, 벤처캐피탈협회 2016년 연감)

다. 조치사항

- 「코넥스시장 상장규정」 개정

(2) 지정자문인 활동을 통한 '홀로서기' 유도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지정자문인은 코넥스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중추적 제도로써 상장·공시 등 시장 전반의 핵심적 역할*을 수행하고 있으나,
 - * 상장적격성 평가, 기업정보제공(공시대리, IR), 유동성공급(LP) 등
-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정자문인 수수료*를 큰 부담으로 인식
 - * (상장시) 약 5천만원, (상장후) 연간 3천만원~8천만원 수준
- 기업 자체 공시역량을 갖추고 있고, 유동성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지정자문인 서비스(공시업무, LP업무)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
 - 지정자문인 수수료 인하 및 기업 자체역량 강화 유도 필요

나. 개선방안

- 직접 공시제 및 유동성공급(LP) 의무 면제 허용
 - ① (직접 공시제) 상장 후 일정기간(예: 2년)을 경과하고, 최근 2년간 공시의무 위반이 없으며, 최근 1년간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직접공시 허용
 - 단, 직접공시 신청시 공시담당자 지정 및 교육이수 의무 (사업보고서 작성, 전자공시 실무 등) 부과
 - ② (LP 의무 면제) 상장 후 일정기간(예: 1년)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 대해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 의무 면제 허용
 - * 예) ①일평균 거래량 1,000주 이상 & ②거래형성율 95% 이상 & ③LP 거래관여도(= LP거래량/ 전체거래량) 1% 미만
 - 단, 매년 유동성 평가를 통해 일정 거래규모(면제요건 수준) 미달시 유동성공급 의무 再부과

【 지정자문인 제도 개선안 】

지정자문인 업무		현행	개선안
상장	기업실사·상장적격성 심사	의무	좌동
	신규상장 사무처리	의무	좌동
관리	자본시장 법규 자문	의무	좌동
	공시 및 신고 대리 업무	의무	선택 허용 (2년 이상 성실공시법인)
	기업현황보고서 작성	의무	좌동
	기업설명회 지원	의무	좌동
	상장적격성 판단(상폐 관련)	의무	좌동
거래	유동성공급(LP) 업무	의무	선택 허용 (일정규모 이상 거래형성종목)
이전	신속이전상장기업 추천	선택	좌동

※ 공시대리 선택제 및 LP선택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정자문인 선임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

다. 조치사항

- 「코넥스시장 상장·공시·업무규정 및 세칙」 개정, '상장공시·매매·시장정보시스템' 변경

(3) 클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 지원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*에 대해 지정 자문인 선임의무를 일정기간(상장일부터 3년간) 면제하고 있으나,

- 초기기업의 특성상 상장준비 및 안정적 시장 정착을 위해 전문가 조력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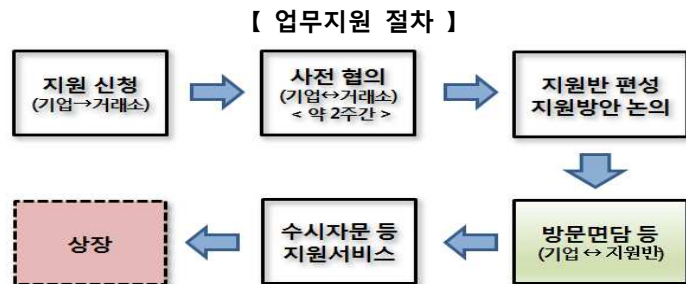
* 펀딩 실적 & 참여 투자자수가 일정 수준(3억원 & 50인) 이상인 기업

나. 개선방안

- 거래소, 증권사 등 유관기관*이 지원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준비, 공시 자문, IR개최 지원 등 시장진입 및 초기 정착 서비스 제공

* 거래소, IR협의회, 증권사,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상장추천기관 등

- 해당 기업의 성공적 시장 안착을 위해 상장전 단계부터 지정 자문인 선임시까지 지원 지속



다. 조치사항

- 관계기관 협의, 전담지원반 편성 등

2 [거래활성화] 유동성 확충 및 거래편의 제고

- ◇ 모집 및 매출제도 개선을 통해 코넥스기업의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의 중간회수 지원 기능을 강화

(1) 소액공모 한도 확대 : 10억원 → 20억원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소액공모제도*의 적용기준이 엄격하여 중소·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**

* 공모금액이 1년 합산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

** '16년 중 소액공모제도를 활용한 자금조달 실적은 95건(708억원)으로 증권신고서를 통한 공모실적 3,102건(120.1조원) 대비 3.1% 수준

나. 개선방안

- (i)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및 (ii)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*에 대해서는 소액공모 적용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 추진

* 예) 투자유치 3억원 이상, 참여 투자자 수 50인(전문투자자 2인포함) 이상

- 코넥스기업은 신규상장 후 5년간,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은 요건을 충족한 펀딩이 있는 후 5년간 적용

- 다만, 투자자보호를 위해 부적격기업*에 대해서는 현행 한도(10억원)를 유지하고, 소액공모 공시서류 부실기재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 마련

* 예)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, 자본잠식 발생 기업 등

다. 조치사항

- 자본시장법(부실기재 배상책임), 시행령(소액공모한도 확대) 및 증발공 규정(소액공모한도 확대 미적용 부실기업 범위) 개정

(2) 기본예탁금 면제 및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 확대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코넥스시장의 투자수요 기반이 부족하여 시장의 가격 발견 및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미흡

* 일평균 거래대금(억원)

· ('13) 3.9 → ('14) 3.9 → ('15) 18.2 → ('16.1Q) 28.3 → ('16.2Q) 28.1
→ ('16.3Q) 26.1 → ('16.4Q) 16.5 → ('17.1Q) 12.4

일평균 거래형성률(매매거래 성립일수/전체 매매거래일수)(%)

· ('13) 49.6 → ('14) 32.6 → ('15) 58.9 → ('16) 73.3 → ('17.3) 75.1

나. 개선방안

- 기본예탁금 면제 대상 및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상 창업기획자(엑셀러레이터)*의 코넥스시장 참가유인 제고

- 창업기획자는 현행 기본예탁금 면제 대상인 개인투자조합, 전문엔젤투자자, VC 등에 준하는 투자 전문성이 인정되므로 동일하게 기본예탁금 적용을 면제

*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, 투자 및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·시설을 보유, 중기청에 등록한 법인('16.11.30 시행)

- 코넥스기업의 공모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청약권유자(50인) 산정시 제외되는 투자자 범위*에 창업기획자를 포함

* 전문투자자, 회계법인·신평사 등 전문가, 최대주주·임원 등 연고자, 창업투자회사, 특별법상 집합투자기구, 개인투자조합, 전문엔젤투자자, 일임형 하이일드펀드, 코넥스 기본예탁금(1억원) 이상 보유자 등

다. 조치사항

- 「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 및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

3 [이전시장 촉진] Fast Track을 통한 이전시장 활성화

◇ 이전시장 요건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코넥스 → 코스닥 성장사다리체계의 원활한 작동 및 벤처생태계 선순환구조 정착 지원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① 코스닥 신속이전시장 요건(3가지 트랙, 후술)이 엄격하여 전체 이전시장기업(26개사) 중 신속이전시장 활용 기업이 9개사에 불과

- 특히 트랙 2 및 트랙 3 활용도가 저조*

* 신속이전 시장요건 적용 기업 : (트랙 1) 8사, (트랙 2) 0사, (트랙 3) 1사

- ② 지정자문인 선임유지의무 정비 필요

- 신속이전시장 트랙 1의 경우 지정자문인을 1년 이상 선임·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반면,

- 트랙 2, 3의 경우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을 미적용

- ③ 신속이전시장 시 상장주선인의 보호예수의무 기간*이 일반 이전시장에 비해 과도

* 일반이전 : 공모분 3%(10억원 한도), 3개월간 보호예수의무 부과
신속이전 : 공모분 5%(25억원 한도), 1년간 보호예수의무 부과

나. 개선방안

① 신속이전상장 요건 정비

요건	현행	개선안
트랙 1	상장 이후 1년 경과 1. 매출액 100억원 이상 & 2. 영업이익 시현 & 3. <u>일평균(1년)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</u>	상장 이후 1년 경과 1. 매출액 100억원 이상 & 2. 영업이익 시현 & 3. <u>기준시가총액* 300억원 이상</u> * 상장예정주식수 × 공모발행가
트랙 2	상장 이후 최근 2사업연도 모두 1.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& 2. <u>ROE 10% 이상</u>	상장 이후 1년 경과 1. (직전년도) ROE 10% 이상 & 2. (최근년도)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& ROE 10% 이상
트랙 3	상장 이후 최초 2사업연도 中 최근 사업연도 1. 당기순익 40억원 이상 & 2. ROE 20% 이상	상장 이후 1년 경과 최근 사업연도 1.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& 2. ROE 20% 이상

②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 합리화

-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을 모든 신속이전상장 트랙에 대해 6개월 이상으로 정비

③ 신속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

다. 조치사항

- 「코스닥시장 상장규정」 개정

4 [투자자 보호]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

- ◇ 코넥스기업 투자정보를 확충하여,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강화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코넥스 상장기업의 특성(소규모·창업초기) 상 공시의무 완화*가 불가피 → 전문기관 등의 투자정보 제공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 필요

* 분·반기보고서 제출 면제. 단, 이를 보완하기 위해 IR 개최(연 2회 이상) 및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 제출(연 1회)을 의무화

- 또한,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분석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'15년부터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(KRP) 사업을 추진

나. 개선방안

- 맞춤형 IR 및 KRP 사업* 활성화를 통해 코넥스기업 투자정보를 질적·양적으로 확충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

* Konex Research Project(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) : 리서치 기관(증권사)이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, 거래소가 관련 보고서 발간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'15.하반기에 도입('15년 34건, '16년 86건 발간)

- 기업별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맞춤형 IR 중심으로 IR 개최 횟수를 확대*하고 업종별·지역별 등으로 개최 형태를 다양화

* 개최회수/참여기업수
· ('13) 2/52 → ('14) 3/107 → ('15) 6/143 → ('16) 6/224 → ('17.목표) 7/250

- 보다 양질의 분석보고서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KRP 지원사업 규모를 지속 확대*

* ('15.하) 34건 → ('16) 86건 → ('17.목표) 100건 이상

다. 조치사항

- 합동/맞춤형 IR 개최, KRP 지원(리서치기관 연계)

Ⅲ. 기대효과

-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하여 초기 중소·벤처 기업의 성장을 지원
 - 크라우드펀딩 → 코넥스 →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모험자본 공급 시스템을 강화
- 모험자본의 '투자 → 회수 → 재투자' 선순환구조 활성화
 - 코넥스시장의 상장 문턱을 낮춤으로써 성장잠재력이 큰 초기 중소·벤처기업의 자본시장 활용기회 제고
 - 창업기획자 등 전문투자자의 코넥스시장 투자 유인을 제고 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개선
 - 신속이전·합병상장 제도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의 회수 및 재투자 기반을 강화
-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를 통한 시장의 지속 발전
 - IR 개최, KRP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를 확대하여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

Ⅳ. 추진일정

- 코넥스 상장규정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들부터 착실히 추진
 - *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제출·협의

구분	세부 추진과제	조치사항	일정
상장 활성화	①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* '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방안' 포함	• 코넥스 상장규정 개정	'17.6월
	② 지정자문인 졸업을 통한 '홀로서기' 유도	• 코넥스 상장/공시/업무규정 및 세칙 개정 • 상장공시/매매/시장정보 시스템 변경	'17.7월
	③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 지원	• 전담지원반 편성(관계기관 협의)	'17.9월
거래 활성화	④ 코넥스기업등 소액공모 한도 확대 * '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방안' 포함	• 자본시장법 개정 •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발공 규정 개정	'17.下 ~ '17.下
	⑤ 기본예탁금 면제 및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 확대	• 코넥스 업무규정 세칙 개정 • 증발공규정 개정	'17.7월 '17.下
이전 상장 촉진	⑥ 신속이전상장 요건 정비 * '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방안' 포함	•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	'17.6월
	⑦ 신속이전상장 시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 합리화		
	⑧ 신속이전상장 주선인 보호예수의무 부담 완화 * '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방안' 포함		
투자자 보호 강화	⑨ 기업설명회(IR) 개최 확대	• 합동/맞춤형 IR 개최	'17년 중
	⑩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(KRP)	• KRP 지원(리서치기관 연계)	'17년 중